

1999年度  
行政監査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建設交通局

日 時 1999年12月3日(金) 10時00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財務建設委員會 '99년도 종로구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평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시간을 최소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나은 봉사 행정에 역점을 기울인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고품질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吳鍾錫 建設交通局長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關係公務員 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建設交通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委員長 吳弼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建設交通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吳鍾錫 建設交通局長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吳鍾錫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建設交通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洪柱喆 建設管理課長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土木課長이 공석 증으로 李子和 土木擔

當主事입니다.

다음은 宣圭景 交通指導課長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鄭倫漢 交通行政課長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吳弼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委員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도 委員님들의 충고와 따뜻한 격려 덕분에 심기일전 노력한 결과 새 서울 안전 다지기 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3억원으로는 주민의 숙원사업 8건, 소나무거리 보도 확장, 구청 민원실 보수공사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진한 분야도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委員님들의 고견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委員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만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土木課長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관련 국장이 답변할 수밖에 없으나 토목 분야가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係長이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질의보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99년 연말을 보내면서 종로구 관내에 웬 굴착작업이 그렇게 심한지 10~12월까지 굴착작업 현황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유가 된거 한번에 집중적으로 21개 동을 거의 다 파 제쳐. 그리고 파 제쳐도 좋은데 파면 바로 매꿔 줘야 되는데 이게 1주일, 10일 이상 계속 되니까 밤에 덜커덩거리고 추돌 사고 계속 나고 하니까 토목과는 10~12월 굴착허가 현황 서류를 갖다 주고 그 다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고 그런데 홍제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교량 2개소 340m 이거 어디를 했는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해요. 공사가 끝났는데 어디를 했는지 도면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중인 채택이 될까 걱정이 돼서 제가 이왕 마이크 든 김에 하나 물겠어요.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지요? 그런데 등록세, 취득세가 왜 시효소멸이 돼? 그 이유가 뭐야? 어떻게 해서 자동차 사면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현 차를 사도 요새 조희 상황이 아주 잘돼 가지고 판매인이 팔 때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전 게 밀려있으면 다 내야 이전등록이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동차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시효소멸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야.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등록을 할 때 등록 업무는 하지만 세무과에서 그 세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쪽에 참고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등록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해준다고?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수작업했을 때 그 케이스에 걸려 있었던 게 나중에

○玄壽漢委員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취득이후 30일 이내 자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취득세는 시효소멸이 되고 등록세는 등록할 시점에 내는데 혹시

과표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후에 고지서를 냅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선서를 했으니까 바로 얘기를 해. 왜냐 하면 세무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등록세나 취득세가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을 하고 나면 자기네가 고지서를 받아간다네. 받아 가면 그 한달 내로 납부가 되고 그 한달 내로 납부가 안됐을 경우에는 추가고지서로 독촉장을 보낸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차를 팔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러면 업무를 취급할 때 왜 5년씩 가도록 그 차 압류조차 하나 못 하면서 시간만, 날짜만, 년도만 되면 시효소멸을 시키느냐 이거지, 그걸 분명히 대답해줘야지. 나는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꼭 먼저 내는 걸로 알았다고. 내가 차를 중고차를 몇 번 사 가지고 먼저 사람이 밀린 걸 전부 내가 차값 줄 것에서 공제하고 납부하니까 등록이전이 되더라고.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저희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표 설정을 잘못 해서 추후에 좀더 부과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발견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보다는 시일을 뒤서 압류이전에 독촉장 보내기 그 사이에 팔아먹는 경우는 사실 공백기간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시효까지 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효기간 넘어가 가지고 그 사이 5년 동안 압류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건수하고 금년에 시효소멸한 게 무려 한 300건 돼요. 액수도 적지가 않아.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그거는 세무과에서 압류요청이 와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 압류요청이 안 왔거나 거기서 부주의로 했거나 했을 때. 저희들은 압류가 오는 바로 즉시 압류처리를 해버립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체납자들의 등록세, 취득세 압류요청서가 그게 들어와야 돼? 그거 넘어

온 현황은 있어?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거 현황 좀 가져와 보고 나중에 대질심문을 하든지, 공무원들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얘기가.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종합토지세가 땅이 있기 때문에 부과했던 말이야. 그것도 수백 건이야. 공무원들 앉혀 놓고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종합토지세, 재산세 다 그래. 어떻게 해서 5년이 지나면 없애버리는지 결혼처분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래. 이 체납현황 요청한 서류 있으면 제출해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玄壽漢委員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弼根 예,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연일 감사행정에 협조해 주신 우리 전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연일 되는 수고에 대단한 발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268페이지를 보면 '98년도 도로점용 및 적치물 동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동별 상품 적치 및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로1,2,3,4가와 종로5,6가는 상업지역이라서 도로에 나와 있는 적치물이 많아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과를 합니까? 전부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점용료 부과 실적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행정지도 한 것 그런 개념입니다. 가게에서 물건 조금 내렸다고 점용료 부과하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하루에 한번씩 청계천에서 종로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우회전으로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측은 우리 종로 관할

이 아니겠습니까? 청계천쪽도 거기에 상품진열이 도로가 한 6m, 인도가 6m이상 이렇게 되는데 단 1m나 1m50도 안 남기고 적치물을 내놓고 장사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다이를 판다든지 행거를 판다든지 물품 파는 데 가보면 엄청나게 도로로 인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적치물로 보고 계몽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거기는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저녁 7시 반, 8시까지의 적치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돌아오면서 차를 세우게 되면 차를 세우는 사람한테 욕을 해요. 차도인데도 차를 세우는 사람한테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차도까지 갖다놔요. 그리고 차도에 차를 못 세우게 물통을 갖다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행거를 갖다놓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아침에 가서 보시거나 낮에 가서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겁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에는 269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신고조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승인동 宣相善委員 집 들어가는 쪽에 보면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에 조금 못가서 조금 더 나가면 15m 정도 나가면 지하철공사에서 환기통이 뭔지 모르지만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멋대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지하철 시설물 환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관할구청의 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예,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과장님도 바로 그 자리에 내 건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옆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 밑에 환기통을 해도 지장이 없

는데 일부 그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물 앞에 환기통을 별도로 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나 다른 宣委員님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구청에 관계자들에게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류가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 육교 밑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吳錦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20m이상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환기구로 설계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학원이 이제 바로 서고 바로 앞에 환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접수돼서 시행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신 육교라든가 인접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는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시행부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곳에 보기 싫지 않은 곳에 적치물을 환기통을 할 수 있는데 건물 앞에 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또 외관상으로 보기에다 나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70페이지 좀 봐주시죠. 도로가관점 수량 및 최초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및 채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판매점 171개, 구두댕이박스 133개, 토큰판매소가 33개입니다. 지금은 토큰 판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예. 토큰 판매가 아니고 버스카드 충전소같은

○吳錦南委員 충전하기 위해서 그 장소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33개소가 전부 종로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가로판매점은 171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느 가관점에 가서 내가 가관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살 수가 있느냐 하고 한 10군데를 물어봤습니다 15%정도 약 20%정도가 임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는 얼마냐, 500

만원에 30만원 위치가 좋은 데는 40만원에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밀히 해주겠다 그러면 과연 가관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원 소유자나 할적에 여기에 가서 문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비협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서 이야기 할적에 가능한 애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실지로 그 분들이 임대해서 장사가 잘되면 모르겠지만 장사가 안되면 지금과 같이 체납금이 남지 않겠는가 왜 이러한 데에 체납, 지금 현재 가관점은 장사들이 잘 되는 것으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체납된 것을 보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체납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무성의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시죠.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吳錦南委員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관점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심증은 갑니다. 현실적으로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가관점 소유자 변경이 안됩니다. 그 문제점이 각 구에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례준칙안이라든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로시설물 체납현황 이것은 10월말 현재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납입필 통지서가 9월말까지만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98년에 25건이고 '99년도에 13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까지 저희가 담당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확인을 시켰습니다. 시키니까 가로판매점은 '98년도, '99년도 게 완결되었고 어제까지 그리고 구두뒀이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98년도에 8건에 228만원 체납되어 있고 '99년도 것은 9건에 221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점 시설 사용료는 2건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우리 직원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어제까지.

○吳錦南委員 금년말까지 하면 100% 완료되겠네요?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예, 다 됩니다.  
○吳錦南委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가로판매점이나 구두뒀이박스를 새로이 2000년부터는 단장을 해서 2002년에 월드컵도 있으니까 거기에 광고 홍보물도 하고 그 모든 것을 각 구에 의뢰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사실입니다.  
○吳錦南委員 아직 구체적인 시달은 없고요?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예.  
○吳錦南委員 광고물을 간판에 넣게 되면 그 수익성은 우리 구에서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그것은 구에서 한다든가 시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일단 시에서 방침이 민자유치 하는 것으로 확정해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 서울시에 진달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에 대해서 묻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연 3일동안 감사를 합니다마는 체납액이 우리 종로구에 엄청납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종로구 1년 예산이 체납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천이나 도로나 구거는 충분히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낼 수 있는 처집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약 45% 정도를 못받았고 '99년도에도 거의 같은 상태에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고 시세입니다. 다음 구수입으로서도 3분의 1 정도를 못받은 상태예요.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체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무사안일주의로 무책임하게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 과연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내가 보수를 그렇게 받아갈 수가 있겠는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45만원 정도나 미납이 된 상태에서 내가 봉급을 받고 생활할 적에 과연 이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밀려나가다 보면 체납액이 우리 종로구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물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보다 체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종로구는 구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강남 저쪽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인데 종로는 구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물론 본인에 의해서 점용된 것도 있고 낙원상가라든가 구기동의 신영상이 같은 것 그런 경우에는 독촉고지서 내보내면 90%가 다 체납입니다. 낙원상이 같은 것은 낙원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낙원상가를 지은 거거든요. 소송이 '99년 6월에 끝났습니다. 계속 소송진행 중이고 물론 위원님이 꾸짖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직원으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 체납이 주로 이런 것은 돌출간판입니다. 강남이라든가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이 없는데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1m 후퇴선으로 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돌출간판 점용료 자체가 없습니다. 종로구는 구시가지기 때문에 돌출간판 점용료가 연간 7억 내지 8억이 되는데 징수율이 30%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업무개선사항으로서 돌출간판은 당해년도에 업무개선도 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적극 노력해서 체납 일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체납 일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체납일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 인원이 38명 되신가요?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건설관리과 직원이 38명입니다.

○吳錦南委員 거기에 공익요원 기타 방법요원이 37명이 포함되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예.

○吳錦南委員 그 분들 많이 활용해서 체납이 가능한 한 적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崔康洵幹事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어제 오전에 질의를 다 못해 가지고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8쪽에 우리 吳錦南委員님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일시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가 '98년도에는 283건에 1억 6,130만원이고 '99년도에는 205건에 4,346만 3,000원인데 이것을 보면 78개 정도가 줄었는데 금액은 약 1억 1,783만 7,000원이 차이가 나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도로 일시 점용료 관계는 보통적으로 공사장이거든요. 대형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데 불경기로 완전히 IMF를 타는 것 같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吳錦南 副議長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부, 서부라고 얘기가 나오면 듣는 우리 위원들이 좋지 않습니다. 종로 1,2,3,4가, 종로5,6가, 창신동, 송인동 이래 가지고 신설동에서 흔히 말하기로는 심장부라고 말하는 데 여기에 보면 도로 점용료 및 적치물 동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부쪽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현재 동부쪽에 현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쪽 훑어 보니까 창신1동에 80건이 되어 있고 '99년에 들어와서 8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하나 뽑아 주시고 또한 지금 도로점용 및 적치물 동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노점상에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2002년이면 월드컵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치가 되는데 현재도 동대문에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손님들이 많이 와서 다니는 길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한달에 두번씩 단속을 나가면 키가 2m만

되면 쇠파이프에 이마를 딱 박을 정도로 길거리에 물건을 너무 내놔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게 해달라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단속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나 사람이 다닐 정도로 해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앞으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선배 건설관리과 계신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崔康洵委員 그것은 알아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권으로 단속하면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내줘야 됩니다. 내주면 재발생하고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치경찰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崔康洵委員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단속토록 하겠습니까.

○崔康洵委員 그러면 도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면서 상인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장님께서서는 이 점을 좀 참고로 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0쪽을 봐주시시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판매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맞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러면 이것은 장소를 장사가 잘 안된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옮겨갈 수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崔康洵委員 장소를 옮겨갈 때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옮겨갑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장소 옮겨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행정 자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나무가 10m 안입니다. 10m면 이 벽에서 이 사이

인데 이 안에 7개가 있습니다. 좌석버스 정류소 안에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하철 환기통, 가로정비대, 판매점 그 다음에 우체통, 나무가 2개, 좌석버스 판매소가 하나 그 다음에 노점 이래서 7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좌석버스에서 내리면서 올라가 타면서 하는 사람들이 가로좌판대에 막혀 가지고 사람이 안보여서 부딪혀 가지고 싸움이 나고 별 상황이 다 나는데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얘기해도 시정이 안됐는데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아십니까? 그게 옮겨왔어요. 다른 데서.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해서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누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쪽 훑어보니까 역시 종로1,2,3,4,5,6가하고 창신1동 1,2,3,4,5동을 했어요. 그런데 창신3동에는 '98년도에는 1건도 없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돼서 없습니까? 어떻게 단 1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쪽은 단속원이 배치 안됐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러면 348쪽을 봐주시시오. 명륜3가동에는 단속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몇건이 있는가 하면 명륜동 1,083건이 있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3동은 '98년에 단속원이 없이 우리 구청 단속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고 '99년도 다음 페이지 '99년도에 보시면 명륜3동하고 승인1동은 8월부터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주차단속업무가 우리 구 본청 업무로 뒀에 따라서 그 이후에 명륜3동과 승인1동은 주차단속원을 구 본청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창신3동의 경우는 '98년도에 없다가 '99년도에 다시 배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崔康洵委員 자료가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국회같은데 보좌관들이 있어 가지고 꺾꺾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집에서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자료가 굉장히 미비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오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우리 관내를 보니까 지금 한전이나 체신같은 데서는 상당히 2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이것을 해줘야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불량맨홀 정비는 저희 구에서 합동조사는 유관부서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조사를 같이 해서 발견된 불량맨홀에 대해서는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각 기관별로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우리 창신1동에 보면 맨홀이 비가 오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제가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돼요. 비만 오면 그 지역이 400번지 주택이 일대가 침수가 되고 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삼호텍스프라자 건물을 전에는 지대가 낮았는데 거기를 높다 보니까 이쪽에 주거지역에 맨홀이 막혀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을아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부탁을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먼저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창신1동에 이스턴호텔 뒤로 해서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자연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희 구에 두군데가 가압시설 자동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스턴호텔 뒤쪽에, 그 지역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지대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이나 맨홀 등 시설물이 또 오래돼서 파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 일대를 조사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崔委員님한테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崔康洵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날로 매일같이 연일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金福同委員입니다. 270쪽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副議長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듯이 崔康洵委員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물겠습니다. 종로구의 상징인 나무가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은행입니다.

○金福同委員 색상은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균청색 비슷한 겁니다.

○金福同委員 本委員이 간략하게 얘기하겠는데 현재 하루 판매대가 유인몰을 구두담이박스, 토큰박스,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해서 총 337개가 되어있죠? 그런데 큰 대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종로구같이 지지분한 데가 없습니다. 가로판매대도 생긴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이런 것을 우리 종로구의 상징인 색상을 감안해서 종로구의 마크같이 완전히 종로 마크 모양의 매점, 가로판매대를 다시 고쳐줄 생각은 없습니까? 고친다면 시 예산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가로판매대는 아까 建設管理課長 답변대로 내년부터는 민자유치를 해서 모양이나 색상이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색상은 어차피 區廳長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委員님 고견을 수렴해서 委員님들께 색상이나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구두담이박스나 토큰판매소에 대해서는 별도 시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로판매대와 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래도 종로가 살기 좋은 종로 아름다운 종로라는 구호는 멋진데 사실상 종로로 들어와서 구석구석 본다면 아름답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 간판문제도 그렇습니다. 1년에 이 돌출간판세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저희들은 이 돌출간판세

를 도로점용료라고 그러는데 '99년도 8월 9일 이전에는 한 면이 8만 8,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이잖아요. 곱하기 2로 해가지고 16만 7,800원입니다.

○金福同委員 종로구에서 걷히는 총 금액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허가분 부과가 5억 9,000만원이고 무허가분은 약 7억 7,000만원입니다.

○金福同委員 작년도에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전, 15년전에 살다가 이주하고 간판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우표대금을 손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에 엄청나게 많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샅샅이 점검해서서 예산이나 경비가 단 10원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들출간판 정수 현황이라고 그래서 '98년부터 '99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98년도에는 3,250건이었는데 '99년도에는 597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이 들출간판 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는 도시계획과에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허가에서 유�허가로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새로운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일체 무허가 정비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건수가 많고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설치가 있죠? 局長님도 잘 아시겠습니까만 지난 6월 달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노출된 맨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맨홀, 한전맨홀, 체신맨홀, 가스맨홀 이렇게 유인물 나뉘드린 것 아시죠?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면도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직도 큰 대로, 몇m 도로입니까? 종로통이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35m도로입니다.

○金福同委員 35m도로죠? 차량이 하루 몇 천대가 통과하고 있지요? 그런 곳에서 큰 버스나 큰 차량이 다닐 때 맨홀이 얇고 높음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하철 안에서 들으면 소음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부서지는 소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종로구에서 큰 사고가 있기 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좀 올려서 균형을 맞추는건가 이렇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死後藥方文은 소용없습니다. 병들고 죽은 다음에 약 써봐야 소용없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름답게 여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화문에서 신설동까지는 금년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56개 정도의 불량맨홀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불량맨홀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을 주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연말 안에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어서 287페이지 토목과 소관입니다. 土木課 課長님이시죠?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직무대리입니다.

○金福同委員 직무대리 배고 그냥 과장이라고 하십시오. 과장님으로 해주시고, 내일 모레 과장님 되실 건데 뭐.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있어서 종로구가 엄청나게 신문지상에, 4대 일간지에 전국이 떠들썩하게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에 걸쳐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1년에 토목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약 17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엄청나게 쓰고 계시네요. 종로구

청 예산의 몇 %를 쓰고 계십니까?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15%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어서 金福同委員이 크게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받아서 제가 다 봤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서류 자체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고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답변해주십시오. 각 동에 사용되고 있는 서류 자체도,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 서류 하나도 일치가 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묻겠는데 보안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종로구청 공문입니다. 감사자료예요. 공문을 보면 '98년도 9월부터 품목보수에서 차이가 있어요. 지난해와 금년 '98년도와 '99년도에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도 몇 만원이 왔다갔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니까? 서류를 같이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먼저 토목과에 일어난 나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그 보안등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지침만 내려줍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수업자를 선정해서 각 동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금 '98년 8월 이전의 노임단가하고 그 다음 IMF 때문에 작년 9월부터 노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노임을 보니까 보안등 보수관리 노임단가가 평균 14.5%, 많은 데는 한 25%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14.5%가 다운됐고 금년도에도 다시 14.5%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전하고 8월 이후의 노임단가가 합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30%가 다운이 됐고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약 24~25%가 다운이 됐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노임을 지출한 총액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25~30%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아주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각 동에서 서류라든지 기타 보수하는 일지라든지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어느어느 지침만 주고 각 동별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각 동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각 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보안등은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보안등은 우리 토목과에서는 자재만 조달 구매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주고 각 동에서는 총무과에서 소규모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 소규모 사업비에 의해서 각 동장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각 동을 감사한 결과도 있지만 보안등 하나를 고치는데도 어떤 한 업자만 선정해서 계속 그 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업자와 감독직원 간에 이런 부조리문제, 유착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많은 데는 8개 업체가 각 동을 하는데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일업자가 계속하는 문제로 지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보안등 관리 및 보수지침을 각 동에 내려줄 때에 가급적 委員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역으로 돌아서,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다면 예를 들어 IMF전에 7만원 하던 보안등이 지금 3만 5,000원이다. 그렇다면 몇 십년 동안 보안등 가격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

다. 없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그냥 보안등 업자들한테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5%에도 충분히 공기하고도 이윤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텐데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35%하면 6만 5,000원에 했다. 그러면 그간 10년, 20년 동안을 10만원씩 지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종로구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닙니다. 金福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노임단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임단가가 정부 차원에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정된 그 기준에 의해서 노임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이후에는 IMF로 노임단가가 정부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 보수도 IMF 이전에는 한 사람 불러와서 하루 일당을 5만원 줘야 했는데 IMF 때는 실직자가 많고 또 아무나 데려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임 2~3만원만 주면 하루 와서 보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반적인 노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기준한 노임단가대로 설계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보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임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어서 각 동네 자료를 전부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기존 업자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는 전기를 취급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허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 외부에 살고 강남에 살고 있는 이런 업자를 데려다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종로구에 살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보안등 정도라도 우리 지역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보시면 각 동별 염화칼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 해 우리 종로구에서는 염화칼슘을 적절하게 잘 살포하고 해서 크고 적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염화칼슘을 적절하게 잘 썼다고 포상을 받았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포상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서 포상을 더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염화칼슘 분포도를 보면 청운동 20포, 효자동 40포, 사직동 40포, 부암동 같은 경우는 100포.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배정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지대가 많고 지역을 위하고 큰 대로변도 그렇거니와 지역에 고지대가 많은 곳에는 좀더 많이 배정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됴도 불구하고 유독 한 지역에 편중해서 많이 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염화칼슘 문제는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을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구매라든지 관리상에 많은 개선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대책을 작년도에 잘 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서울 안전 분야에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3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 관리는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있으나 고지대 비탈길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많은 양을 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각 동에서 요청이 온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金委員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8년도 자료가 안 들어가는 동도 있습니다. 안 들어간 동은 작년도 배정한 것 중에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하고싶은 말씀은 작년에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더니 종로 5,6가동은 조금 배분해 가지고 인접동인 이화동 같은 경우는 50포를 했는데 종로5,6가동은 20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말은 안 해서 이쁜 마음으로 그런지 종로5,6가동이 이화동 보다 10포 정도 더 배정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長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長입니다. 286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창신주거지역의 도로개설 문제 3억 1,000만원하고 집행내역이 2억 9,000만원인데 9.3%란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죄송합니다. 91.3%인데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렇습니까? 창신2지구의 도로개설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주거환경개선은 금년부터 주택과로 넘어 갔습니다.

○李炯述委員 도로개설 문제도 그리로 넘어 갔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알겠습니다. 근자에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도 얘기하셨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에 하고 있지요? 그게 두께가 덧씌우는데 몇 cm가 최저치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통상적으로 5cm입니다.

○李炯述委員 만약에 5cm가 되지 않고 그대로 외부에서 봐 가지고 덧씌웠을 때 5cm가 안 되게 굴착했을 때 그게 확인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5cm가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발견되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할 때 지금 李炯述委員長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에 대해서 코아를 뜨고 있습니다. 코아를 떠서 5cm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후에 준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면도로에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노면이 간선도로와 같이 일정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치가 5cm라면 거의 5cm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기존 단면이 굴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5cm 덧씌우기 할 때 확인해보면 깊은 데는 7~8cm가 되는 데도 있고 얇은 데는 4. 몇cm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局長님이 바로 핵을 도출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감사하는 줄 알고 종로구민 몇 분이 전화를 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굴곡이 원체 심해서 유출된 부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제대로 될텐데 온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해서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그대로 시공을 했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항의하고 집단민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사를 밀어 부치기로 하는 시공회사 같으면 앞으로 그런 분들은 공사 입찰해서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앞으로 업자 참여를 못 시키든지, 부실 시공이란 게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그대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局長님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던 가회동길 감사원 올라가는 도로 부근, 이 부근에 설계변경도 하고 금액도 증액을 하고 그런 게 같은 년도에 3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일연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런다면 問題는 區廳 執行部에 잘못된 점이 있던 안 그러면 시공회사가 전문성을 결여 해가지고 일단 금액을 정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시공하는 게 옳은 일이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한번 정도는 잘못될 수가 있겠지요. 동일연도에 3건이나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된 거

와 상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제삼자 입장이나 타 기관에서 보면 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다든지 예산을 잘 못쓰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가회동길을 설계할 때에 기존 도로가 약 8cm입니다. 그래서 25cm로 확장할 때 기존에 양측에 건물을 철거 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측량해서 설계할 때 물론 정확하게 측량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철거하기 전에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철거 후에는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도로의 경사나 높낮이, 옹벽의 높이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당초 설계와 물량이 또 바뀝니다. 옹벽을 5m로 처음에 설계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7m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양측 철거된 지역의 지하라든지 토질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李炯述委員 어떤 동이건 간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시공회사가 전문성을 결여했다던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감시·감독하는데 사전에 조예가 없었던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委員들이 보기로는 우리의 혈세가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감사원길을 2000년 12월에 완공시킨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현재 추진이나 보상협의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李炯述委員 보상 진행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약 25~30% 됐습니다.

○李炯述委員 90% 이상 돼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205m 남은 잔여구간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5%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李炯述委員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구정질문 때 제가 누가 몇 년을 두고 구간구간 약속을 한 기간을 몇 년을 두고 이행을 안 합니다. '97년도에 구간 준공을 시키겠다, 부분 준공시키겠다, '98년 구간 준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몇 년씩 넘어가 가지고 계속 짧은 기간을 계속 공사기간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큼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보상이 거의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2000년 12월말로 얘기가 나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기를 지켜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명륜동 주차장 시범지구 하나 있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주차문화 시범지구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대지가 353평 이 대지에 지하층하고 지상 1층, 2층 하고 합치면 3개층으로 본다고 하면 1,050평 대지로 봅니다. 3개층이면, 그렇게 되죠? 지층면적이 353평이면 1,050평 부지에 차가 57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설계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지형상의 문제거나 납득이 안가는데 왜 1,050평 대지에 57대 이상을 주차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차 물론 시범지구로 되어 있는 평수는 353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지하2층, 지상2층입니다. 그런데 지하층은 주차가 들어가서 나올 때 회전하는 여러 가지 규정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략 합해서 지하1,2층 합해서 50대 나옵니다. 지상1층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면적을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20% 범위 내에서 주차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화동 주민의 요구는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관련 부대시설도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상1층은 약 10대 정도의 주차장만 하고 나머지는 부대관련 시설을 해서 주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근본 목적이 가급적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부대시설 20%는 법으로 해놨으니 좋은데 353평에 20%면 몇평으로 뽑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70평

○李炯述委員 70평이죠? 나머지 270평 대지에 차 10대만 할 것 같으면 그 필요치 않는 지역에 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분명히 그 지역에 주차난은 엄청 힘들 겁니다. 그렇죠? 270평 대지에 주차 10대만 계산을 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주차 문화시범 지구에 처음 시도하는 지역인데 저희 종로구에서 그 지역 일대는 지금 말씀하신 350평 규모에 59대만 설계하면 그 동네의 주차수요로는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돼서 59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350평 규모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1,2층과 지상1층 일부를 주차장화하고 기타시설 때문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차관련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고

○李炯述委員 말씀 좀 끊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57대 가지고는 둘레에 있는 차량들은 수용하기 힘들니다. 그리고 자료에 제가 봤더니 주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근 1,000평이 넘는 공간에다 57대를 대도록 했다 이것 주차장특별회계 근본 취지에 크게 벗어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니죠, 제가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주차시설을 하면서 주차관련 부대시설을 20%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설계 및 공사가 들어갈 때에 하고 지금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몇평 규모로 건물을 올울 것인

지 이것은 자세하게 나온 후에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속에 57이라고 하고 나머지 주민편의시설 한다는 자료 못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주민편의시설을 주차관련 부대시설로 20% 범위 내에서 주차관련 부대시설은 뭐 체육시설도 될 수가 있고 그 관련 규정이 몇개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지금 20%를 제외하고 나면 적어도 700평 규모 대지에 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곁들여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수 없이 구경 질문 때마다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 했는데 역시 명륜동도 주민들이 주차난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은 주차난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도움이 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 해주십시오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9월 4일자에 고건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고건 시장님이 작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 마다 한 구역씩 각 구청에 시범지구로 올려라 그러면 시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올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주 시범지구 자체를 해올리지 않았습다. 그러면서 청장님은 구정질문에 많은 주민들 앞에서 해주겠다는 답을 해주고 시장님이 해올려라 했을 때 뻔 연유가 뭔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재동초등학교는 몇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는 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李炯述委員님께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장님과 면담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면담 결과가 신문에 난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처음에 금년에 시행한 것은 작년도에 건의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구청장이 결정할 때에 건의해서 올릴 때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운더

리를 결정할 때에 주차수요와 공급이 100% 할 수 있는 지역이 주차문화 시범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회동 일대는 요건이 열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화 해서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공급이 현시점에서 수요공급을 맞춘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선정하는 데서 제외되었던 사항이고 금년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조정을 해서 주차장을 해결하자는 것이 시장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시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못했던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炯述委員님이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일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좋은 일 같으면 꼭 관철시켜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바로 9월 17일자에 종로구청장 명의로 빼냈다는 자료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시범지구에 뺐다고 고건 시장은 왜 해올리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서울시 관계부서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왜 종로에 뺐느냐, 종로구청에서는 해올리지 않아서 뺐습니다라고 저한테 내용이 그대로 구청장 명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종로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여기 와서 감사하고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감사를 아무리 해본들 대답만 하고 다음에 시정 안할 것 같으면 감사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마지막

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종로구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모든 행정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일날은 재무국 감사를 했고 어제는 도시정비국을 했고 오늘은 건설교통국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는지요? 이런 자료는. 예를 들면 283쪽,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건설관리과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 행정감사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즉석에서 표창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치 못하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1회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 제출이 저는 숫자개념은 없습니다. 자료 제출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283쪽, 284쪽을 봐주십시오. '99년도 도로굴착 복구 및 부과징수 및 굴착공사 현황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징수 내역 '99년 10월 30일 현재 총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총괄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총괄은 복구비용입니다. 283쪽은 비용이고 284쪽은 건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총괄이 과년도하고 금년도 총괄입니까? 현년도 총괄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98년도입니다. 283쪽은

○丁炳煥委員 아니, 284쪽을 봐주십시오. 총괄이 몇년도 것 총괄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284쪽은 '99년도 10월까지의 총괄이고 그 중에 이제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한 것이고

○**丁炳煥委員** 우리 국장님도 헛갈리죠. 솔직히 말씀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총괄은 현년도 거라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현년도와 과년도 합한

○**丁炳煥委員** 과년도죠? 표기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같은 값이면 총괄에 '98년도부터 '99년이라고 표기를 해서 상단에도 총괄이라고 하지 말고 총괄은 좋습니다. '98년부터 '99년 이 표기를 해서 현년도도 '99년도 또 과년도도 한장 넘겨서 '98년도라고 해줬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또 원 단위도 단위 표기를 어떤 것은 천단위, 어떤 것은 원단위 물론 란에 따라서 표기가 다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헛갈리는 점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 제출하면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혼동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 보안등 수리업체 및 수리 건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19개 중에 7개 업체가 고정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7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보안등 보수업체 선정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보수나 지점만 주고 동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접한 정비업체라든가 보수실적이 양호한 업체를 동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金福同委員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지침을 줄 때에 물론 7개 업체나 매년 하는 업체가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 방향은 좀 저희들이 지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봐주기 위한 업자 선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지양되고 동료 위원 金福同委員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 그 지역 그 중에 살 수 있는 사

람을 선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 다마는 요약해서 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325쪽도 지하보수 현황 시설물 연간 단가계약 업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업체에만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이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보수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우리 구청에서 인정해주는 노점상이 있고 무단으로 노점하는 분이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인정해주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종로로 말하자면 정치1번지, 문화1번지, 친절도 1 위 모든 것이 다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10월 23일날 아침 9시 30분 KBS 뉴스에 제일로 걷기 불편한 데가 이 종로라고 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丁炳煥委員** 보도블록이 그렇게 늘어지고 본 위원이나 종로거리를 헤맬 때 그냥 잠상인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고 있어요. 잠상인 단속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은 봐주지 않는가 생각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丁炳煥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지금 봐줘서 종로통에 노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로 종 각부터 신설동 로터리까지는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노점이 허용되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이 '98년 서울시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질서와 계도 차원에서 하고 신발생 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거리의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노점이 죽기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은 어려운 지역입니다마는 특히 작년도 IMF와 관련해서 생계용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종로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발생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허용된 구역이기 때문에 질서라든가 너무 과다하게 점용해서 한다면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체도를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TV를 볼 때 보도블록이 널려있고 노점상이 있고 아주 길기가 제일 나쁜 거리라고 할 때 본 위원이 가슴이 찡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도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왕교통 팔각정 허가내역에 대해서 금년 6월 4일날 종로구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었다 했는데 제가 '99년도 상반기는 재무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이 관계를 의회의 청취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청취를 거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의회 청취는 없었고 노선조정위원회에 해당지역 구의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교통에서 북악팔각정까지는 부암동과 평창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두 지역의 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가를 내줄 때 그래도 그 지역 구의원들 종로구 의원들은 이러한 노선에 이런 마을버스가 인가 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해당동 2개 동의 의원들만 참석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이 우리 종로구에 어떤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는데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선조정위원회의 팔각정 가는 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해당지역 구의원님만 참석을 시켰는데 지금 丁炳煥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

명을 드리고 이러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丁炳煥委員**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종로지역을 드나드는 노선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건설관리과입니다.

○**丁炳煥委員** 어제 도시정비국에서 이것을 정비국에 질의를 했더니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은 어떤 관련근거에 의해서 간판세를 부과시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입니다.

○**丁炳煥委員** 도로 점유에 따라이요? 현지를 답사하고 실제적으로 그 간판이 그 도로에 얼마나 인접해있는가 그 간판 규격이 얼마인가 확인하고 부과하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동사무소도 구청장님 소속인데요 저희 과장계가 세사람이 있거든요. 세사람이 다 못하고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조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동장이 부과합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탁상에 앉아서 동사무소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컴퓨터가 동에까지 다 연결되어 가지고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삼환여관하고 구분여관이 형제간이 하고 있습니다. 삼환여관은 간판규격을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m라고 하면 구분여관은 높이가 20m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삼환여관은 1차에 부과액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18만원이 나왔습니다. 구분여관은 1차에 8만원이 나왔습니다. 배가 더 되는데. 삼환여관이 와서 건의를 하니 1차에 18만원이었던 것이 나중에 조정해서 8만원 해주고 동생 것 구분여관은 1차에 8만원 했던 것을 30만원으로 경충뛰어서 부과를 시켰고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형제간에 싸움 붙어났어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丁炳煥委員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 점용료는 돌출이 이렇게 되면 '99년도 8월 9일 이전에 신설한 것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88,400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176,800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양면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타구에도 그랬지만 도로법을 개정해달라고 진달을 많이 했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면이지만 1면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88,400원만 과세가 됩니다.

○丁炳煥委員 과세는 관련근거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민원이 제기한 것은 18만원 나오던 것은 8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옆에 있던 8만원 나왔던 것을 30만원 부과한 것은 앞서 실제적으로 간판규격과 그 도로를 얼마나 점유했는가 점검도 않고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그 관계는 우리 관계직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丁炳煥委員 현지에 답사를 시켰습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야 민원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과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차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347쪽입니다. 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무질서하게 골목마다 다 주차를 시켜놓은 것은 단속을 위한 목적입니까? 세율을 올리기 위한 단속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배정시켜서 얼마를 부과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단속 누계에 보니까 천태만상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까? 세수를 받기 위한 단속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각 동별의 단속실적은 주로 동사무소에 여건에 따라서 가장 많은 데와 적은 데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 다마는 특히 종로동에 인접해 있는 동은 그만큼 불법주정차의 형태가 많고 또 주택가가 위치한 동은 불법주정차가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차이가 났지 어떤 단속실적이냐 세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에서 단속실적이 부진하면 조금 좋지 못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우리 구 본청에서 동에 어떤 지적을 하거나 질타를 한 적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무단 주차를 안하면 단속 안해도 구청에서 어떤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현재 주차단속 체계가 동사무소에서는 각 관할 동을 단속하고 또 구청소속 단속원이 전체 지역을 총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과다해서 그 동사무소나 단속원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한 적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어차피 12시까지 할테니까 332쪽을 봐주시시오. '98, '99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처리현황 그 체납자 재산압류가 32건에 4,466만원 재산압류를 했는데 구청에서 세금이 체납되면 재산압류만 했지 사후조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십니까? 재산만 압류 처리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유발부담금이라든가 체납의 경우에 저희는 재산압류를 당연히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체납액이 조금 안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건물주가 도산을 했거나 그런거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100% 저희가 받고 있다고 봅니다.

○丁炳煥委員 제가 재무국 행정감사에서 지적

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재산 압류만 하지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앓고 있습니다. 압류함과 동시에 압류하고 그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하고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 하는 그 기간이 있지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법적 규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법적 규정 때문에 실제로 그런 납부자들이 그걸 고의로 막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이 법을 준수한 내에서 하나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2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구수입하고 도로·하천·구거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이것도 1만 443건을 지적해 가지고 징수는 6,758건, 미징수 건이 3,685건인데 10억 3,783만 1,000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270쪽입니다. 가로시설물 체납 현황 하단에 이것이 '99년도에 건수가 13건인데 당초 부과는 몇 건을 했는데 지금 13건이 남아 있습니까? 부과한 내용은 없고 체납된 건수만 있네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당초에는 171건입니다. 가로판매대가 171건에 약 3,600만원 부과했습니다.

○丁炳煥委員 지금 남아있는 것은 13건에 353만 1,000만원 징수하면 되겠네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이거는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도로일시점용료와 도로점용허가 구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99년도에 접수가 149건이고 허가가 141건, 반려가 8건인데 어떤 내용으로 반려를 한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99년도 반려 내용을 말씀드리면 8건 중에서 순수한 반려는 3건이고 3건은 취하가 되겠습니다. 반려는 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물 흐름에 방해 위험이 있어 가지

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우리 玄壽漢委員님 계시지만 중부교육청 그 건으로 해가지고 그게 반려됐고 또 1건은 점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보도에 주차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또 1건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반려되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습니까? 처리 내용에서 허가 141건에 4억 2,954만 7,000원 부과했는데 이건 징수됐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이 관계는 100%입니다.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12%가 됐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점심도 잘 잡수셨고, 그런데 局長님은 하루일과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일과를 얘기하면 한달, 년 대충 어떻게 보내시는지 자기의 업무 일과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하루일과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委員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하루일과가 요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통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통 출근을 공무원 규정상에는 8시 5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8시경에 사무실에 나옵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최근에는 행정감사 및 정기회에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연구하고 9시경에는 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보통 1시간이나 1시간 반까지 하고 그 외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각 과의 결재라든지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마찬가지로 각종 회의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을 하고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꼭 제가 가볼 현장이 있다면 현장 확인 등을 한 후에 나머지 시간은 오후에 결재 등을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쟁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이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局長이면 각課長들이, 각課長들은 자기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의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議員님 같으면 각자 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생산한 물건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을 팔고 어떻게 소비가 되는가를 파악해야 기업인이고 기업 사장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은局長은 각課長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내 관내의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자기 직업의 성실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局長님! 감사자료에 공사하지도 않은 감사자료가 올라왔고 그것이 물론 감사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319페이지 보면 홍제천 정비공사가 벼랑 2개소, 하수관 신설 340m, 차관로 보수 22개소 해서 인덕건설에서 '99년 10월부터 12월 30일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오류라고 하면 建設交通局長의 업무보고서에도 16페이지 보면 홍제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교량 2개소 340m, '99년 6월 공사완료. 이거 자료 제출 하라니까 이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공사 한 거요 안한 거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밑에 직원들 그런 거 공사한 일이 없다. 그럼 이

자료가 어떻게 올라왔어? 그 다음 지금 감사장인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오전에 하셨어. 그럼 이거 밑에課長들이 써준 거 그냥 읽은 거요? 읽어도, 그냥 읽었다 쳐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여기에다 업무보고를 해야지 우리議員들을 뭘로 보고 어디가 잘못된 건지 吳局長 한번 설명 좀 해보슈.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그제 한번은 넘어가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玄壽漢委員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아까 丁炳煥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5·6번은 홍제천 차집관거 보수공사와 홍제천 보수공사 이것이 1개 사업인데 아마 과에서 내용을 아래위를 잘못 분류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319페이지 홍제천 정비공사 이것은 사업물량을 합해서 놓은 사항인데 업무보고 자리에 나눠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럼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덮어놓고 밑에 사람들이 해주면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 거요? 도대체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내가 建設交通局長이면 이 분야에서 손바닥 보듯 훤히 다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것은 난 하루일과 중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그래서 여쭙보는 거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글썄 제가 토목과 사항만 머리에 꺾고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과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委員님처럼 머리가 좋다면 다 꺾고 있는데 제가 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료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무엇을 하느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4개 과건 10개 과건 우리 종로구 내 소관 내의 모든 일은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꺾고 파악을 하고 업무보고만은 한번은 사전에 읽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왔는지 점검을 하고 나오셔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직에 계신지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우리 구청에서 각 국장들 중에 제일 엘리트 이시고 답변 잘하시고 일하시는 게 아주 능수능란 하시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러한 吳局長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吳局長 하는 일을 믿고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해주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각성을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局長으로서 일할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해가면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젠 말단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야. 총 책임을 지고 있는 局長이 책임을 져야지 이걸 어떻게 말단놈들한테 너희가 이걸 왜 이렇게 오류를 범했느냐고 얘기할 수 없잖아. 局長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몇백명 되는 전부,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局長님은 파악을 하셔야 해요. 課長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도 여러 가지 공직에 있어 봤지만 그날 말단 사무실에 속 들어가 보면 말단들 일하는 근무 자세를 딱 보면 그날 오류 발생하는 게 나와요. 매일 저녁마다 결재를 합니다. 분명히 나가서 사무실에 들러봤을 때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눈초리나 뭐 하는 거 보면 나옵니다. 오류가. 이놈 오늘 일 잘 했나 못 했나. 그날 결재사항이 어떻게 왔는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아까 交通行政課에다 우리 의정계에서 요구했는데 세무1과에서 자료 왔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委員長님!** 재무국 소관이지만 교통행정과 업무를 비교하기 위해서 세무1과에 자동차취득세, 등록세 결손처분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당장 가져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委員長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

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지금 직원을 보내 가지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아까 우리 신영동 신영아파트나 또는 낙원상가의 아파트나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 현황이 부진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회수 못한 금액 이것이 언제까지의 통계죠?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98, '99년도 것입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98년 '99년 혹은 '97년이나 '96년 안낸 상황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갔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다 했습니다.

○**玄壽漢委員** 이거 꼭 하셔야해. 압류조치 안 하면 나중에 洪課長이 다른 부서에 가도 내가 소환해서 할거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영아파트. 거기 잘 안내는 동입니다. 그런데 압류조치를 하니까 그나마 거둬. 그런데 금년 안전진단 결과 앞으로 몇 년 안에 철거대상이 되니까 유념해서 철저히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내년도에 또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님! 한국일보 정비공장 주변 침수방수 시설공사.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나왔는데 이게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건 그 주변의 공사명이 아니고 저회들이 시비 1억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종로 관내 하수시설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을 시비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정비공장 주변이라고 한 것을 그 외에 나머지 전체 지역에 1억원어치 140개소 빗물받이를 개량하기 때문에 명칭을 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로 관내 빗물받이 140개소를 전부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표기만 그 외의 몇 개소 이런 내용 때문에 들어간 명칭입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吳局長님! 종로 관내 140 몇 개의 지역에 무슨 공사다 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일보 정비공장 이렇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와 있는데 局長 마음대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감사자료에 첨부한다면 이건 시간낭비야. 우리 議員들!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질문하게 만들어?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죄송합니다.

○玄壽漢委員 그리고 오전 중에 交通行政課長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답변이 잘못됐다고 나중에 서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분명하게 여기 속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오셨을 줄로 알고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달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번호판을 달아주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고차를 우리가 서로 매매할 때 구매자는 매도인이 미처 체납된 모든 세금이나 벌과금을 내야 이전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소관 세무과에 조사한 결과로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가 이번에 결손처분한 걸 보니까 한 300건이 돼.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히 하는데 어떻게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가 결손처분이 무려 300건이나 나오냐 이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자동차등록 때, 이전 때 그걸 소상히 답변해야 범조항을 따지던가 시행령조항을 따지던가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특히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등록세는 등록세를 바로 완납했다는 완납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에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100% 등록세를 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저희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번째 취득세는 이게 누가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둘다 세무과의 소관인데 취득세는 그걸 이전등록을 하고 30일 이내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안낸 게 나중에 체납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전이 안 되는 게 아니구요. 단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사자마자 등록세 안 내면 그 차가 도대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자동

차 2대 하면 중과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등록세 자체도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별 차량 하나씩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세무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등록세가 중과세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 현상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분명히 하세요. 취득세고지서는 나중에야. 한달 유예가 있다. 그럼 등록세는?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등록세는 완납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차량 2대가 따로따로 등록을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세무 그쪽에서 하기 전에 일단 그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세무과에서 보니까 차량이 2대 있었다. 그래서 중과세 결정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玄壽漢委員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결국 세무1과 자료가 넘어와야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금방 자료가 오겠습니까? 요청했어요?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네. 했습니다. 참고로 등록이나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걸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세무과 소관이라 제가 깊이 있게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걸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검증하고 대질심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以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점심 잘 잡으시고 소화도 참 잘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委員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데에 좀 본 위원이 듣기에 궁색한 부분도 더러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우리 건설국 전체의 임원들께서 감사자료를 소홀히 했다 하는 이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감사자료를 읽어보면 예를 들면 같은 공사이고 같은 업자가 같은 날 발주를 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쪽 이걸 갖다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여보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잘 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부정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소홀히 했다 하는 이점이 우리로서는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건설국에 모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를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는 집행부에서 전혀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하지를 않아요. 말로는 명예감독관이니 하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와서 뭘했는지 조차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 무엇을 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여기 하수도공사 하는데 파헤쳤는데 뭐합니까? 저기 한쪽 모퉁이에 뭐 하수도공사 뭐 해가지고 이러한 공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것 하는 양 의기양양해 가지고 차도 못다니게 턱턱 막고 주민의 불편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사전에 몇월 며칠날 하수도공사나 파서 아스콘 씌우거나 보도블록을 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한다면 어느 날 며칠날 공사현장에 가서 하니 의원님들 여기를 가서 보시고 감독을 해주시고 동네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시오 아니면 동사무소에라도 그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자기들이 책임 짓기도 어정쩡한 것은 의원님들 명예감독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 영똥한 도장이나 찍어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내가 한 4년반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몇번 겪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자체가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

씀한 대로 그렇게 해줄 것입니까? 안 하실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以煥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년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그 지역의 모든 공사는 유관부서를 포함한 모든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동 및 구의원님께 직접 다 말씀을 드리도록 누차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위원님 다시 만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유관부서까지 해당지역의 공사에 대해서는 동에 통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원님들한테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는 그랬고 각종 공사를 할 때 준공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소위 말하면 명예감독관한테 사인을 받고 어느 것은 안받아도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그동안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셨던 사업은 저희 구에서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소홀한 분야가 유관부서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 등은 구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기타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관부서 공사까지 구의원님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러면 각종 공사를 이렇게 할 때에 특히 보도블록 까는 것이라든가 아스콘 까는 거라든가 포장하는 과정에 하수도 같은 것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또 보안등을 하나 설치할 때도 제대로 설치하려면 공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끝나고 우리 의원들한테 꼭 사인을 받도록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규 어느 지역에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도로보수라든가 덧씌우기 이것은 저희들이 뒷골목에 발생될 때마다 구의원이나 동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여러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임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예,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玄壽漢委員님 말씀따라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 혈세를 쓰는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항상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질문도 하고 또 물기도 하고 추궁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많은 숫자들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참 지나고 보면 용두사미예요. 다 소용 없어요. 그냥 거기서 듣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의원들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신경 쓸 수 없잖아요. 한참 지나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나 보면 그냥 그대로 있던 말입니다. 그냥 그 자세로 있는 그런 것이 비밀비재합니다. 이러한 것 또한 건설국에서나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해서 잘못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면 그러한 것들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감사자료를 미비하게끔 한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추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는 잘못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서로간에 넘어가면 참 좋겠으나 지금 자료 만들어놓은 것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장장이 거의 다예요. 다 지적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말씨름 하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잘못돼서 시정하십시오 또 아니면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면 바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발전이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만 쪼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발전이 안되고 항상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사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160억 쓰신다고 그랬죠? 토목과 13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상비 빼고 160억 정도 쓴다면 15%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과일입니다. 이러한 혈세를 쓸 때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매스컴도 봤을 겁니다마는 하수과가 들어가 있는 것 알죠? 부정사태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 사실 안 그럼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증이 간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거죠. 하수도공사 같은 데 보면 첫째 공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불손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시비하고 대화하면 아주 짜증스럽고 그러다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손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말 안하고 넘어가자니 그것도 큰 문제라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선임될 때 분명히 업자들한테 홍보하고 계몽을 해서 우선 태도부터 자세부터 잡아서 이렇게 해라. 제가 항상 가끔 공사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깁니다. 당신들 여기 와서 무슨 과오다 시합하려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조그만 공사하는 데도 막 갖다 처넣고 차고 주민이 지나다니는 것도 그 사람들 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니까 거기서 불만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짜증스러워하고 그 사람들 해박야 싸움밖에 안되고 하니까 앞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민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계약자들에게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것이 되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以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에,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272페이지 118번 건설관리과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상가 아파트 도로점용료 부과 및 재산압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5년만에 2억 고지서가 날아간 종로구 낙원상가에 대한 '94년도분 부당이득금 부과, 상인들이 부과 소식을 듣고 뒤늦게 징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일간지에까지 대서특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낙원상가측과 우리 구와 어떠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吳錦南委員님 말씀하신 것을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상가는 상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골치 아픈 건입니다. 원래 첫단추가 잘못된 낙원상가 아파트거든요. 이것이 건물이 '68년도에 되어 가지고 준공이 '70년도에 된 건물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은 도로이고 상가하고 사무실은 2층에서 5층까지 사무실입니다. 나머지 6층부터 15층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점용료가 누락된 동기를 원인을 규명해보니까 지난번에 낙원상가 아파트가 세금이 억울하고 두번째 독촉고지서 없이 압류했다 이래서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감사를 받았습시다.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구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94년도에 누락된 게 발견되었습니다. 누락이 왜 된고 하니 '94년도 담당자가 '89년도부터 '93년까지 5년치를 한꺼번에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94년도 1월달에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임자가 봤을 때 '94년 1월달에 추징을 한 것을 '94년도에 부과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4월달에 331건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吳錦南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상당히 집단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사전에 이 사항

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집집마다 안내홍보문도 보내고 그래 가지고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원상가하고 그 위에 아파트는 10% 정도는 세금을 냈습니다. 나머지 현재 계속 점용 이후 시점부터 체납이 된 것은 아까 玄壽漢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시효소멸될 것 같아서 '94년 1월달에 부과한 것이 시효소멸될 것 같아서 낙원상가하고 아파트 것 거의 다 압류 다했습니다. 만일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든가 등기 물건하고 현황하고 다른 것 그 외에는 압류 조치를 다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사는 주민들 인식이 상가 소유자라든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점용료를 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많게는 열 몇 건, 적게는 한두 건씩 계속 내려 오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납부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때 '94년도에 정기분 누락이 되었다 하시는 분이 지금은 퇴직을 해서 상세한 것을 모른다 그렇게도 답변을 하셔서 가지고 지상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분을 찾아서라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그와 관련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종로구청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내라고 하면 주민들은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잘못된 부과를 그대로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민폐를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닌가 직접적인 본인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建設管理課長 洪柱詰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 관계가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98년 제가 확실히 기억하기는 7월 24일자인가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부과가 정당한 부과다.

'99년 9월 1일자 서울시 고법 판결이 났고 그래서 '99년 9월달에 대법원 소송 계류중입니다. 지금 계속 소송 계류중입니다.

○吳錦南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계류중이고 또 이것이 판결이 되면 내년도쯤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그 사건은 해결이 되었는데 돈 징수하는 것은 완전 해결하기가

○吳錦南委員 계속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안에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비율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7, 80%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주민들 여론이라는 것이 7, 80%가 동의를 하면 같이 따라가는 예가 거의 많습니니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것을 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그 부분에 신년도부터 부과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結 예,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부과 허가 건수 및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징수현황이 274페이지 있습니다. 시 수입과 구 수입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 부과현황하고 징수 채납액을 볼 때 3분의 1이 안들어와요. 결과적으로 건수만 올렸지 실질적으로 수입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면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수구나 도로점용료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판도 이렇게 되면 우리 세수가 결과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철저하게 좀 가려줘야지 이렇게 계속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조금 이따 과장님 임기돼서 다른 부서로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게 되면 나도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 전부 회피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에 지금 현재 채납액이 약 우리 예산 1년 예산에 가깝다는 것은 참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납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채납이 줄

어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불량맨홀이 되었던 아니면 정기적인 맨홀을 묻든 간에 하수도나 상수도나 체신이나 한 전이나 도시가스나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가 6월달에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6월달에 시작하면 우수기가 닳칩니다. 우수기 닳치면 파만 놓고 두달은 그냥 넘어가요. 두달 넘어간 다음에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8월말이나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월 중순이나 12월말경이면 벼락치기로 완성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것은 구민인데 업자는 자기 편에서 6월달에 발주해서 12월에 완공하게 되면 돈은 돈 대로 들어가면서 주민한테는 그런 불편을 주는 공사를 시키는가 이것은 관계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이 큰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공사가 3월달부터 시작이 된다는가 4월달부터 시작이 된다는가 좀 연내 앞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吳錦南 副議長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주관으로 유관부서와 합동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불량맨홀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량맨홀 조사 건수가 각 유관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보수작업에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 1, 2월에 합동조사를 해서 상반기로부터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279페이지 '99년도 토목공사 도로개설 확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이 도로개설이 완공은 '99년 7월 28일, '99년 8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성이 된 것이고 언제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 이 자료가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이것은 비고란에도 보면 비어있으면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공사기간이라고 해놓은 그 날짜에 완성이 되는 공사라고 생각하면 이 자료만 봐도 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거의 2,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까지 미뤄지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로 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끝난 것인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앞으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80페이지 신교동, 필운동간 도로공사 진척과 또 기타 다른 지역의 도로사업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도로를 낼 적에는 가스관이나 하수도나 상수도나 모든 제반 시설을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겠다. 왜 가스공사 할 때 파고 하수도 할 때 파고 상수도 할 때 파고 봤다 덮었다, 봤다 덮었다 하면 이것이 2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 도로가 되는 데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도록 좀 해주시고 그 공사장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상수도 하는 사람은 하수도 하는 것하고 어떤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따로 따로 해야 한다. 또 가스하는 분은 상수도에 그런 얘기를 하고 하수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기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구비까지 직접복구비나 간접복구비나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설도로가 되는 데에는 모든 제반시설을 한꺼번에 매립하는 것으로 과에서 다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고 하면 중부수도사업소하고 연결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吳錦南 副議長님께서 명확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유관부서가 동일한 기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차 회의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하수도와 특히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에 대해서는 수도와 예를 들면 가스가 같이 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둬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해주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행 안된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도로 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가 끝나면 바로 다른 유관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중복되는 기관이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292페이지 염화칼슘에 대해서 다른 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서초구 토목과 주사라고 하는 모 7급이 '머리는 자신이 쓰기 나름이에요'라고 한 이런 얘기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동구 토목과 8급입니다. 8급 기능직인데 염화칼슘 제설작업에 대한 시간단축장비 개발은 2시간 10분 만에 1년 걸려 실용화에 성공해서 '97년 터널청소 고압세척기 발명, 또 제설차량에 직접고안 브레이크 장착 노면구조물 칠거 등 각종 행사 때 활용. 이런 걸 볼 때 모든 것이 일번지라고 하는 우리 종로구에는 이런 정도의 머리를 가지신 분이 안 계신가?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저도 전문인은 아니지만 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종로구 일번지에 계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 보다 좀 못 하더라도 이 보다 나오면 더 좋겠지요. 일간지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 것이 좀 나와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과장님이 아니더라도 7급, 8급, 9급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러한 좋은 것이 신문상에 나오면 누가 좋겠습니까? 종로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

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다음은 239페이지 보시면 흠관이란 것이 하수구 중간 사 거리에 맨홀 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됩니까? 하수도관을 얘기합니까?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하수도관을 말합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하수도관이 사거리에서 가운데 모아지는 건 됩니까?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맨홀입니다.

○吳錦南委員 그 맨홀을 사서 합니까?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현장에서 맨홀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제품 나온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서하는 게 가격이 많이 먹힙니까?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서 한 것도 많이 나와있는데.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여기는 맨홀 자체를 산 건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왜 그러나 하면 하수구가 양 사 거리에 있을 때 중간에서 묻어서 나오는 건 빠릅니다. 그런데 로터리 가운데 맨홀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15~20일 가요. 이것 때문에 하수도 공사가 더 늦어지는 겁니다. 공사하는 데 가보셨으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싼지는 모르지만 사다가 물어 가지고 하면 일이 쉬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차도 못 다니고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다 줍니다. 하수도공사 한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맞는 관을 사서, 구입해서 하는 걸로 하면 구민의 하수구나 아니면 어떤 도로공사에 지장을 덜 주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스콘 가격이 천차만별합니다. 여기 재무과에 지급되는 걸 보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스콘, 철근, 기타 아까 얘기한 흠관 이게 똑같은 회사에서 납품하는데 우리 과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에 3,000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2,000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날짜가 다르냐? 같은 달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아스콘 같은 거는 더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빼봤더니 그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토목과에서 한다해도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각종 공사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관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발주와 동시에 자재구매요청이 조달청에 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9월에 구매 요구한 자재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면 납품이 되거든요. 그때 가격하고 10월 달에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요청이 가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면 그때 또 낙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 53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납품은 11월 17일, 12월 31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를 비교하면 5,000원 차이가 납니다. 4만 7,344원인데 토목과 것은 5만 2,475원. 또 그런가 하면 4만 4,000원짜리도 있고 4만 3,000원짜리도 있고 같은 토목과인데도 그래요. 이런 걸 죽 계산해 보면 녹지과는 4만 9,000원짜리도 있고 교통행정과는 4만 8,000원짜리도 있어요. 또 아스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용량, 쓰는 용도에 따라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구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글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 부서나 발주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1개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은 레미콘이라 할지라도 압축강도에 따라서 재질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또 아스콘도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일부 그러한 차이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삼청동 28-42 빗물받이공사 내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소 앞 베트남 대사관길 거기 공사입니까?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거기에 주물등이 6개 있지요?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네.

○吳錦南委員 거기는 제가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나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도로도 백번도로가 있고 일번도로가 있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옛날 백결선생이 있듯이 백번 때워 붙인 도로가 있고 하나도 안 때워 붙인 단일도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는 한번도 때운 데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물받이를 만들었는데 기존 도로에 조금 낮게 물받이를 만들면 아스콘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어느 특정인이 거기 안에 살더구만요. 그러면 안 씌워도 될 데는 씌워드리고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한 사직동 262-85호에서 262-57호는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백번도로는 아니지만 아마 50번 도로는 될 겁니다. 이런 데는 안 해주고 높은 분이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안 해도 될 데를 해주더라 이겁니다. 거기다 주물등까지 갖다가 아주 멋있게 달아났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이런 도로에 왜 아스콘을 씌우냐? 바로 그 위가 축대 있는데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직동 262-58 여기에 아스콘을 씌워달라니까 여기 전문위원이 와서 보더구만요. 아스콘을 씌워야 되는지 아닌지 보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도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봤는데 그 분 눈은 다른 모양입니다. 백번도로는 안 해주고 한번 도로는 해준다 이거죠. 거기에다 아스콘을 깨끗이 씌웠어요. 제가 가보니까 공사기간이 '99년 6월 19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결이 10월 28일로 됐어요. 아스콘포장까지. 또 며칠 후에 가보니까 가스등까지 다 달았어요. 12월 12일날 가보니까 등도 멋있는 거 달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종로 전체를 놓고 볼 때 일이란 것은 끌고루 해줘라 하는 것을 우리 토목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사직동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보다 더 못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나 안 해도 될 데를 왜 하느냐 이거죠. 이상으로 마치고 土木課長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土木擔當主事 李子和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형평성 있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 340페이지를 봐주세요. '9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창신3동이 전혀 실적이 없다고 답변한 걸로 압니다. 창신3동에는 단속요원이 없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1건도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丁炳煥委員 그러면 명륜3가동은 2,153건인데 명륜3가동 348페이지 보면 단속요원이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단속실적이 나왔습니까? 동사무소에 단속요원이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단속실적이 2,153건이 나왔나구요. 우리 課長님들이 허위 보고한 거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전에 창신3동은 단속요원이 없어서 1건도 없다 그래놓고 명륜3동도 단속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건수가 나왔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98년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창신3동에는 주차단속을 현재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창신3동에는 '98년도에 단속원도 공익요원도 1명도 없었고 주차단속 자체를 안 했었고 명륜3동은 단속원은 없고 공익요원이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고 그래서 공익요원이 단속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공익요원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그 지역에서 단속을 했다면 여기에다 반드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다 나왔는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창신3동에는 단속요원이 없어서 하나도 단속건수가 없다 했는데 명륜3가는 공익요원이 단속한 걸로 해서 여기에 표기가 안된 겁니까? 이거는 허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課長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겠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상황을 파악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그것은 '98년도에 창신3동은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원과, 공익요원 자체가 없었고 명륜3가동은 단속원은 없고 공익요원은 있었다. 공익요원이 단속한 실적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확실한 것은

○**丁炳煥委員** 그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어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이건 잘못된 거죠? 課長님 생각에도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인

○**丁炳煥委員** 이 자료 제출 가지고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서류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 올라온 것만 해도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지요?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신3동은 주차단속원과 주차단속을 보조하는 공익요원 자체가 1명도 없었고 명륜3동은 주차단속원은 없되 주차단속을 보조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있었다. 그 공익요원이 '98년도에 단속한 실적이다.

○**丁炳煥委員** 공익요원은 단속요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단속 보조요원입니다.

○**丁炳煥委員**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자료 제출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8조항에 공익근무요원 사고자 처리현황 이렇게 됐는데 사직동에서 근무하는 정은성이기 오토바이 추돌사고, 돈암동의 김민호가 교통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금 1~3번이 각각 교통사고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번은 공익요원이 사고를 낸 것이구요

○**丁炳煥委員** 우리가 낸 겁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입원 처리한 겁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공가 처리를 했습니다.

○**丁炳煥委員** 공가 처리를 하면 물론 병원비는 가해자 편에서 부담하겠습니까만 우리 구청에서는 피해자라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조하는 걸로 끝납니까?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하지 않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전혀 하지 않아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공익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丁炳煥委員 그리고 교통지도과 4, 5번 심신허약으로 병가처리를 했는데 심신허약으로 교통단속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심신허약이라고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진단서를 떼고 이 사람들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교통지도요원으로 병무청에서부터 와서 저희 부서로 배치가 돼서 활약을 하다가 지병이 있어서 진단서를 내서 정식으로 병가처리한 겁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6월 30일까지 병가처리 해가지고 완치를 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6월 30일 이후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丁炳煥委員 또 한가지 우리 구청 19개 동, 구청의 차량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승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게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丁炳煥委員 우리 관 차량이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보험도 총무과에서 일괄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 사항은 잘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침 07~21시까지 하고 있는데 07~09시까지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정식으로 주차단속은 09~21시까지입니다만 현재는 17~21시까지는 기동조 1

개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래요? 그러면 물론 퇴근을 해야 되는데 밤늦게 이거를 앉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야간에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언덕에다 차를 양쪽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떤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119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은 못한다 하더라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통반장회의 때 무단주차하는 것은 야간에도 끝아가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침은 세운 게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아까 07~21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전화가 들어갈 경우 즉시 그 분들이 차를 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21시까지는 전화를 하면 상황실에서 바로 뛰어 갑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현장에 출동을 해서

○丁炳煥委員 우리 宣課長님! 여기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를 주게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약속받은 누가 담당합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交通指導課長님! 상당히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만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야간에 언덕 양쪽에다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각 동에다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委員長님! 한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질의를 신청하면 바로바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오랫동안 하게 하지 마시고.

○委員長 吳弼根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1개 동에서 예를 들면 부암동 같은 경우에 부암동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1개 동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소규모사업비로 배정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동은 3~4,000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金福同委員 그래요? 그러면 우리 局長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관리팀만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닙니다. 소규모사업비이기 때문에

○金福同委員 총 얼마를 쓰는지 경비같은 것은 모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金福同委員 그럼 제가 한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암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부암동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부암동 1년 예산이 얼마나 하면 3억 8,799만 3,950원입니다. 委員님들! 알고 계십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오늘 건설 분야만 빼봤습니다. 524만 8,400원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역주민의 편의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쓰면 쓴 곳이 명확치를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현재 각 동네의 보안등 문제라든가 하수도 문제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등등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동사무소 자체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구청까지 오기 전에. 이 많은 예산을 썼으면 그 돈에서 썼다는 근거가 분명히 나와있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모르시고 계신다면 이런 점은 局長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큰 도로 대로변의 보안등, 가로등 문제는

우리가 IMF로 인해서 격등을 쓰고 계시지요? 격등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있으면 가운데를 안 키고 이쪽 켜주고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격등을 키되 중간에 서로 교대해서 켜줘야 되지 어느 집 앞에는 몇날 며칠 켜주고 어느 집은 한달이 가도 켜주지 않는 그래서 망가지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현재 개방돼서 막 발전되고 있는 북경도시를 가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높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서있지 않습니다. 현재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종로 구만이라도 가로등 자체를 1m 정도 내려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비춰주는 빛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얘깁니다. 이것 알고 계시는지요?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6월달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자체를 우리가 문화벨트,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장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앞으로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는 없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수입을 벌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방침도 문화벨트 서울 시청에서부터 상가 동대문까지 문화관광벨트로 맺고 있어요. 이어서 가급적이면 이대병원 옆에 울곡로를 기점으로 해서 보안등을 아주 예쁘게 장식해서 대학로까지 거쳐서 창경궁 이쪽을 다 관광을 시킬 수 있는 코스를 잡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은 건설분야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관광 온다면 단 먼지가 떨어져도 우리 종로구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관광객을 외부에 다 뺏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315쪽을 봐주세요. 토목분야인데 하수시설 보수공사 내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면 낙원동 243-1, 289-2 450m 빗물받이 5

개소, 맨홀 3개소 묶어서 이러한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딱 하니 얼마 예산 들어가고 얼마 했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야지 왜 묶어서 합니까? 그렇죠? 토목과장님 잘못된 것입니까?

○土木課長 崔潤玉 예.

○金福同委員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동네입니다. 충신동 1-291~18-44 빗물받이 4개소, 계단설치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낱알이 파악해서 1, 2, 3 연번을 매겨서 어느 동네 무슨 공사를 얼마 먹혔으며,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얼마 들어갔다 어떤 회사에서 맡았다. 명백히 나와야 하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게 됩니까?

○土木課長 崔潤玉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번에는 잘 돌아가지만 다음번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에 버스노선 침범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어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전용차선제

○金福同委員 불법 전용차선이죠? 거기를 단속해서 얼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효자사업이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11억 정도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약 11억

○金福同委員 대단히 큰 효자사업이네요. 판 데 나올 데가 없는데 다른 사람 교통 위반한 것 찍어가지고 벌어들이는 것 우리 종로구로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돈을 내는 벌금을 내는 본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벌점도 나오죠? 거기에.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벌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벌점의 적용은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서로 이첩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벌점이 됩니다.

○金福同委員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의원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잘 듣고 계십시오. 벌금도 내고 벌점도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벌금을 내야 되겠죠. 거기다 20점, 30점 가산돼서 벌금이 나와서 면허증이 취소된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대표로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전용차선 들어오는 길게 꼭 그은 데 그었다가 점점 하는 데서는 차량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기점을 몇m 정도 전용차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몇m나 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전용차선은 전부 7개 노선에 18.6k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차로에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전혀 버스 외에는 운행을 하면 안되고 그것이 단속대상이죠. 실선은 1.1km 1,100m

○金福同委員 그런데 우리 동네는 함정을, 종로구 관내에 종로구청에서 함정을 몇군데 해놓은 것이 있죠? 1,100m 안되는 곳이 있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함정을 종로구청에서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용차로의 점선과 실선의 구분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金福同委員 경찰청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위반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종로구청에서 욕을 안먹기 위해서 1,100m를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 계획에서는 그러한 민원 노선은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경찰서나 경찰청과 협의 후에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과장님! 1,100m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짧게는 50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m 이상을 점선이 아닌 진입을 못할 수 있는 차선이 50m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m도 안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서 단속을 했다면 단속하신 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분들에게 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宜圭景 버스 전용차로에서 실선 구간을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대부분 실선구간은 어디가 주로 실선구간이나 하면 버스정류장 부근은 거의가 실선구간입니다. 그래서 종로관내에서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많은 데는 당연히 실선이 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버스가 많지 않은 데는 비록 50m이상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편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30m 그어도

○交通指導課長 宜圭景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은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그었다 이겁니다.

○金福同委員 기관과 기관 사이에는 협의체가 안 됩니까?

○交通指導課長 宜圭景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지만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실선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30m로 되어 있는 것을 50m로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더 피해를 주는 거죠.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골목길에 끼어 있는 곳은 골목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회전 차선이 된다고 하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갈 수가 없다면 거기서부터 실선을 그어줘야죠. 거기서 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카메라로 적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福同委員님 말씀하신 주 내용은 현재 버스전용차선 실선이 현장에 안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보다는 주민 편의를 해결하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경찰청 소관이지만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선 그은 상황 중에서 종로 일대가 그렇습니다. 우회전 차량이나 나오는 차량이 부당하게 실선을 침범할 경우

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세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주민편의 위주로 무리한 단속이 안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렇게 국장님같이 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껌껌하게 답변하니까 내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여하튼 국장님 말씀 잘 듣고 한 가지 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밖 종합시장 건너편에서 창신동에서 저쪽에 중구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자체가 매일같이 혼잡하고 주차장이 되어 가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예.

○金福同委員 그쪽으로 차선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을 많이 주고 안하고도 결국 가서는 얼마 전에 시에 종합대책에 대해서 종로측하고 연결된 게 왕산로측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놓고서 항공촬영까지 해서 그 실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차후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또 한가지 민원입니다. 감사와 무관한 얘깁니다. 완전히 중구쪽에서 나와 가지고 동대문을 돌아서 종로5가를 돌아서 혜화동까지 가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얘기했어 요. 울곡로를 바로 돌아서 대학로를 통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것을 안하고 계시대.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버스 조정에 대해서도 시에서 기본적으로 심의가 오는데 그 주변 민원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그것을 해줬으면 참 좋고 우리들도 긍정적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구에서 민원인들이 반대할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조정에 문제가 있는데

○金福同委員 다른 구 걱정하는 것을 왜 과장님이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만 좋아지면 그만이지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제는 주민을 편하게 살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지역주민이 소수가 얘기하는 것이나 많은 숫자가 얘기하는 것이나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건의도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울려 가지고 울곡로에 버스노선이 두개 다니는데 울곡로로 돌리면 교통 혼잡이 안됩니다. 어떤 데는 가운데 꼭 막혀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울곡로를 때버리면 아주 소통이 잘 돼요.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을 한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너무 짜증스럽고 국장님 얼굴 보니까 얼굴 붉어지고 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우리 金福同委員님께서 짧고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고 해놓고 아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崔康洵幹事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님 감사합니다. 왕산로, 창신동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은 왕산로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종로 언젠가는 종로7가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 육교관계를 넣었는데 지금 마침 관내 육교 설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육교가 17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종로구하고 증구하고 종로구하고 서대문하고 연결된 것이 숫자가 이렇게 17개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 관내에 있는 것만 17개입니다.

○崔康洵委員 그러니까 청계천 가면 종로하고 증구하고 연결된 것이 몇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 중에서 청계5,6가에 있는 것은 증구 소관이고 3,4가에 세운상가에 있는 것은 저희 종로구 겁니다.

○崔康洵委員 상당히 많은데 창신1동은 완구 전국도매, 어항 전국도매, 신발 전국도매, 문구 전국도매 창신1동에서 전국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의 관광객이 하루에 20만명 내지 30만명이 왔다갔다 하고 또한 우리 구민회관이 2월달에 개장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웃인 동대문구를 보게 되면 지하도 위아래 사람이 걸어서 건너가게끔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지하철하고 승인동로터리가 거리가 상당히 멍니다.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그 중간에 육교를 하나 댄다면 이 참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많은 발전이 오겠다는 지적이 많아 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IMF 때문에 우리가 상정을 못시켰다가 을 구정질의에는 이 육교를 내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바로 후문이 크라스타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크라스타워 빌딩하고 그 건너편에 완구, 문구, 어항, 신발 도매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보람약국 그 사이가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다 육교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의에 넣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 보도육교는 철거 및 제거를 하고 재시공을 가급적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육교를 지금 위치 선정을 해서 지금 육교를 다시 놓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철거를 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육교가 사고 없이 보행자들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까? 철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동대문지하철하고 승인동로터리하고 하나를 더 열결해주면 구민회관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崔康洵幹事님이 지역일대의 설명과 승인동로터리에서 동대문 사이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정책방향이 당초 '90년 이전에는 차량 중심으로 도로가 운행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설치하면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육교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부터는 차량 위주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보행자가 단거리로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나 지하보도 등을 설치하고 육교설치는 지양하라는 서울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육교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되 이 노후된 육교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일부 경기도라든가 새로 설치하는 육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당초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20m이상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주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통량이라든가 보도육교의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서울시와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그 위치가 말이죠,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도라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위치라 꼭 육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이 상당히 참 알고 비니까 불쌍하시네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니까 답변도 좋았는데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참 알고 보니까 불쌍한데 내가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골목에 주차단속 하는 것 말입니다. 거기 6m도로나 4m도로도 단속을 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宜圭景 예, 6m이하 도로도

○崔康洵委員 6m이하, 그러면 4m는요?

○交通指導課長 宜圭景 4m도 포함되죠.

○崔康洵委員 그런데 골목을 다녀보면 불법단속이 사실상 단속을 안해도 괜찮은 데는 단속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진짜 단속을 해야 될 곳은 또 안해요. 그래서 상당히 참 불공평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고 창신초등학교 후문이 과거에는 거기가 정문이었는데 지금 지봉로길이

뚫리면서 개천이 복개가 되면서 거기가 정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정문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천명이라고 하면 후문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2천명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본 위원을 좀 면담하자 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문으로 학생이 3분의 2가 더 다니는데 거기에 중국집에 재료를 대주는 공장이 있어 가지고 차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는 때가 많은데 사고위험이 많은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동사무소와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도 중국집에 대주는 원료가 거기 허가제품이 아니고 신고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옮겨가라 마라 말은 못하고 가끔적이면 아침저녁으로 차를 대지 말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와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어린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단은 창신1동 구의원인 의원한테 책임을 묻고 두번째는 구청에다 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절끔할 때가 많은데 꼭 길이 4m, 6m를 떠나서 학교 주변이니까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交通指導課長 宜圭景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특히 다른 학교보다 초등학교 주변은 많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이전에 초등학교 후문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우리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동사무소도 본 위원도 책임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崔康洵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2分 會議中止)

(15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아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다른 委員님이 질문하셨는데는 몰라도 이 종로 화신백화점부터 신설동 로터리까지 가로단속 실적이 나빠 가지고 말인데 노상적 치몰이나 가로단속비로 금년에 예산을 얼마 받았어요? 그전에는 20~30억 받은 걸로 아는데.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99년에는 1억 7,400 받았습시다.

○玄壽漢委員 지금 현재 얼마나 썼어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인건비만 조금 남았습시다.

○玄壽漢委員 얼마나 남았어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12월 인건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왜냐하면 委員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자꾸 단속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넉넉히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고맙습시다.

○玄壽漢委員 그렇게 하시고 도로굴착 승인 현황은 10월, 11월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건수하고. 제가 建設交通局長님께 여쭙보는 게 왜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해줬느냐 이거야. 총 건수가 148건이지만 어떻게 종로바닥 돌아다니면 전부다 뚫어. 길을 전부 쪽쪽 잘라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일본은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일본은 파면 뒤쫓아서 바로 복구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파놓으면 1주일, 열흘씩 가. 그러니까 잠깐한 데 가다 보니까 나는 우리 서부지역만 그러는 줄로 알았더니 중부, 동부를 가도 그래. 내가 한바퀴를 돌아봤어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연말이 돼 가지고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체신부, 상수도 또 기타 있겠지만 연말 예산 편성된 거 한꺼번에 쓰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동절기에 무대

책으로 어떻게 한꺼번에 내줘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도로굴착 승인은 저희들이 동절기가 12월 2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11월 안에 굴착승인을 다해주고 마무리도 12월 안까지 하도록 각 유관 부서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관 부서별로 11월 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11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관 부서 사업이라 할지라도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11월말까지 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11월말까지 굴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것은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주민 식수하고도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12월 달에 일부 기간이 연장돼서 공사하는 것은 상수도가 한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여유를 줬고 나머지 유관 부서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복구까지 완료하라고 허가는 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복구가 안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관 부서별로 조사를 정확히 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제 말씀은 왜 유관 부서라도 집중적으로 11월 달에 전부 내주느냐 이거야. 이것도 우리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局長님께서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내년도로 넘겨라. 반은 해주고 반은 뎀다든가 해야지. 또 복구는 자체 복구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유관기관은 원인자 복구로 해서 자체복구를 합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그걸 시정해줘야지 왜 열흘씩이나 복구를 하지 않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런데 저희들이 10~11월 뽑으니까 148건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관 부서 굴착승인 내준 게 총 2,812건입니다. 그럼 한 달에 평균 250건인데 지금 10~11월에 140건이면 정상시에 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집중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전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통 행정과에 자동차등록세하고 취득세가 공소시효 결손 처리되는 이유를 몰라서 조례개정이라도 하려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조례로 만들 사항이 아녜더라고요. 국회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행자부라는 데가 엉뚱한 것만 업무 세신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데가 행자부야. 세법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아까 내가 질타한 것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錫根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錫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錫南委員 吳錫南委員입니다. 어제도 감사에서 공원녹지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디만 우리 지역의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나무에 있는 판 그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크지요. 그러다 보면 보도블록이 파도를 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원녹지과 하고 상의해서 도로를 정비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삼성건물 거기는 지금 현재 종로 저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보면 조금 일부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원리원칙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회전해서 들어올 적에 교통사고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지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과 문제이겠지만 건축 준공을 해줄 때 일부 채납을 받고 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구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 대행을 해서 근무하시는 방법원이 각 동에 1명씩 있지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吳錫南委員 그 분들을 교통지도과장님이 전부 교통지도과로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금 동에 근무하는 주차

단속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吳錫南委員 아니 방법원이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방법원도 현재 주차단속원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방법원으로서 동사무소 자체의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주차단속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吳錫南委員 앞으로 전부 구로 주차단속원을 이동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이동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잘 아시겠지만 승인1동과 명륜3가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는 주차단속원이 구 본청 업무가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으로 되어 있는, 명년도 각 동기능 전환의 형편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吳錫南委員 그리고 교통지도과인지 행정과인지 제가 자료를 잃어버리고 왔습디만 유명한 인물 한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컴퓨터를 잘 하셔서 매일 와서 일을 봐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도과입니다.

○吳錫南委員 그 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갑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나가지 않습니다.

○吳錫南委員 무료로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십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공공근로로

○吳錫南委員 그러한 분은 우리 종로구에 우연히 오서 가지고 업무처리를 보고 본인이 직접 그걸 관여해서 해주셔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요원 비슷하게 해서 해주시는 걸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우리 지역입니다.

○吳錫南委員 그러한 분들은 초청해서 우리 종로구에 빛을 내고 있으니까 시장 표창이라도 받을 수 있게 추천을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알겠습니다.

○吳錫南委員 그리고 인왕교통, 다른 委員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인아파트 거기가 인왕교통이죠? 거기에 종로구 마크가 붙어있어요.

그 마크를 허락한 겁니까? 인왕교통에서 팔각정까지 오르내리는 거.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건 저희들이 팔각정 홍보차 그렇게 운영을 하는

○吳錦南委員 만약에 그 차가 사고 났을 때 인왕교통을 위주로 해서 종로구까지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거는 인왕교통에서 모든 보험, 상해 문제는 민간으로 해결하도록 다 계약서 상에

○吳錦南委員 계약서 상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계약 체결 상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 정도는 있겠지만 그밖에 다른 운행질서와 관련해서는 민간인 보험으로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종로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吳錦南委員 어떤 계약 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나 하면 종로구 마크가 붙어있는 버스가 인왕교통이 돼서 운행한다면 저는 처음에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종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왕교통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종로구에 책임이 없느냐? 본 위원은 틀림없이 제가 사고났다면 종로구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왕교통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중히 논의가 돼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필운동~신교동까지 도로 난 길이 있지 않습니까? 1,100m. 그런데 일부는 되고 한 1/3 정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직동사무소에서 한 100m 가면 필운동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화대학교 올라가는 쪽에. 거기는 배화대학교, 배화중·고등학교, 매동국민학교 등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임시 노란불 깜박이등과 신호등과 건널목을 만들어달라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문위원이 계시죠? 전문위원이 나와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100이면 10이 반대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80~90이 다 원하는데 조치가 지금까지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나 이런 걸 보고 한 모양인데 제가 그쪽에 다시 한번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99년 10월 26일 12시에 731-0985로 전화를 했더니 모직원이 받았습니다. 확인후 견인하는 운전기사가 1명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吳錦南委員 그 분이 연가를 2박3일 갖대요. 그런데 제가 꼭 이 차가 지금 현재 한 20여일 무단으로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서 이 차를 좀 치워줘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분이 한 분이어서 연가를 갔기 때문에 접수만 해놓지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 레카차 기사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으로 해서라도 24시간 대기한 상태로 해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레카차 끄는 기사가 한 분인데 그 분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직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름도 있습니다. 내가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인 된다면 있으나마나 한 레카차나 긴급사항에 어떤 조치사항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견인 레카차의 기사가 주로 방치차량을 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기사가 2박3일 휴가를 갔다 하는 문제 이전에 위원님께 어떻게 우리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이게 방치차량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

다. 물론 주민이 신고해서 20일 또는 한달 동안 방치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방치차량인지 아니면 인근주민의 차가 운행을 안 하고 놔둔 건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차량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반 문제가 끝난 후에 그게 방치차량이라고 확인이 돼야 건인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문적인 문제라서 아마 직원의 답변이 어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차번호 알고 그 차에 대해서 모든 신원조회 하고 나서 아 그 차는 그 지역에 있는 차니까 괜찮습니다 하면 그 차는 20~30일 있어도 무단차량으로 계속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조금 바꿔서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란 얘기죠. 그 절차를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낮에만 비워놓고 저녁에만 활용하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는 레커들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6시면 6시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 그 차만 아니면 그냥 막 끌고 갑니다. 밤에만 세우는 주민 주차시설이라는 데를 한번 가서 보세요. 3~4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다 돼 가지고 그 차량이 아닌데 그 차가 서있으면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럼 맨 처음 거주자우선주차 할 때 낮에도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 일부 그 지역에 차를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획선을 그어 놓으면서 밤에만 쓰도록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시간만 조금 넘으면 레커로 막 끌고 가버려요. 이런 것도 유동성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다음 土木課長님께 물겠습니다. 이진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세종로와 사직동 사이에 향원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11월 20일날 일요일에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경계석을 깔고 있어요. 새문안교회 넘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이게 됩니까? 물었더니 경계석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 날 직접 동장실에 가서 동장한테 물었습니다. 건축담당도 전혀 몰라요. 이렇게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주민이 저한테 물었을 때, 동장이나 건축담당한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거죠. 그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지역의 동장한테라도 議員한테 안 하면 동장한테라도 해야지 그 지역 사령관도 모르고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 시구요 동별 과속방지턱 수량 및 도색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은 방지턱이 부분적으로 숫자가 적은 데가 있고 무악동 같은 데는 여섯 군데밖에 없고 다른 데 가회동은 열세 군데, 종로1~4가동은 열세 군데, 종로5~6가동은 여섯 군데 이렇게 쪽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160만원 쓴 데도 있고 종로1~4가동은 110만원, 종로5~6가는 77만 2,000원, 이화동은 229만원까지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직동은 7만 7,800원 썼습니다. 방지턱이 17개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擔當課長님! 이 자료는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썼느냐?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 동장이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해서 페인트만 사다가 방지턱에 페인트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값밖에 안 듭니다. 다른 동에서는 전부 방지턱 하나에 크든 적든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 예산을 동으로 내려가게 해서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담당과장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얼마 나가고 하는 걸. 이번에 다 아시지만 동행정사무감사 나가면 청소는 청소과에서 돈이 나오고 방지턱은 교통지도과에서 나오고 다 분야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이유는 뭐고 나가는 이유는 뭔가를 파악해서 왜 이 동네는 220만원이 나가고 어느 동은 안 나갔는가를 파악

을 해야 합니다. 사직동 같은 데는 동장님이 머리를 썼기 때문에 페인트를 사다가 손수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8만원 정도밖에 안 썼다는 얘깁니다. 그리고도 하자 없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있지 않나 이거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 지도과장이 생각을 좀 하셔야지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 동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도 좋고 하다고 청장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실 게 실제로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는데 긴장한 체격이라야 할 수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실제로 아줌마들이 와있으니까 페인트칠을 잘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거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직동에서는 잘 해줘 가지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청장님까지 알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주차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전 구의 상황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종로구를 보면 2회 되는 분이 7,860명 3~4회가 5,908명, 5~9회 3,851명, 10~19회 1,422명, 20~29회가 311명, 30~49회가 212명, 50~99회까지가 88명, 100~199회까지 18명, 200~299회 등 1개 차량이 이렇게 많은 스티커를 받았는데도 안낸 게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1개 차량에 그 많은 것을 가압류를 했겠느냐? 이 자료를 서울시에 안 내셨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위반차량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을 감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주차위반차량 소지자 및 주소 확인에 장시일이 소요되고 그동안 소유자변경 또는 이사 시 고지서 반송 및 확인, 재송부 등을 위한 행정력 소모 극심, 업무 지체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고지서 현장부착 시 과태료 납부기간은 의견진술서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부과하는 것이 좋겠고 현장부착고지서 미수령 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겠어요? 미수령 주장 시 고지서를 발송하되 이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 기본 과태료를 그대로 징수하는 방법 또 과태료 납부고지서의 의무적 등기우편 송달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의 폐지를 요망하면 1차에 일반적으로 하고 2차에 등기로 하는 방법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런 방법을 참고하셔서 2000년도에 실효성있게 과태료징수에 참고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개선지구 내에 대해 우리 課長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 환경개선지구의 보고사항을 쭉 받아 보니까 유아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노인정 등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여러 세대 들어가도 그런 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4m도로를 가다 보면 확대보상 한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옆에 확대보상을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평, 12평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사게 되면 기장은 1대가 들어갈 수 있고 기장은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구 특별회계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액을 볼 적에 1대당 4,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개선지구 내의 토지 값이 싸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라면 차 3~4대는 세울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토지는 큰 토지여야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할 것이 아니라 소필지라도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소필지에도 이런 환경개선지구 내 시설이 안 될만한 곳에는 이런 소필지도 특별회계로 사서 주차장을 해줌으로써 주차장 1대 들어가는데 1,000만원 미만이 들어가는 종로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과 논의하셔서 이 문제

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보상책임이 있는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委員님께서 그전에 제시 해주신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그런 관련 주차장법에 또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도로 개설이 확실시되고 그런 윤곽이 드러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어떻게 간에 환경개선지구라고 하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그런 데일수록 우리가 배려를 다른 데 보다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토지라고 그러면 차를 세우는데 적은 금액이 들면서 차를 많이 세울 수 있으니까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소공원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지도를 내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타당 여부를 해서 가능한한 주민들 숙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 그리고 여러 課長님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委員長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8分 會議中止)

(16時24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局長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해드리겠습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吳弼根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9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가 구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법적장치로 주민을 대신하여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관리상태 등 구정이 위민복지의 바른 행정인지에 대한 감사와 또 민선자치구의 행정력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해보는 계기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추진업무를 재 점검해 보면서 미결을 정리하고 문제점에 미리 대처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이 구정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 제3기를 맞이하여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금번 감사가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감사를 통하여 비쳐진 구정의 단면 가운데 아쉬운 점이나 반성하여야 할 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적인 큰 경제적 시련을 맞이하여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고 해외 연수를 유보함은 물론 준보수적인 채력단련비도 포기하여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회생에 기여한 점은 크게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공사의 시행이 사업성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기여도보다는 지역안배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 등이나 또 일부주민의 의식한 복지시설의 지역별 안배설치로 경직성 예산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별로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시정·개선할 점등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니 구 재정확보와 납세

정의차원에서 체납액 해소방안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지방세 시효결손 처분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압류목적물이 있는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런 세목의 체납발생 시는 신속히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시효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세 번째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잘못 파악하여 착오 과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 착오과세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네 번째로 동 소규모사업의 건설업자 계약에 있어 일부 특정업자가 전 동공사를 독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다섯 번째로 건설용 관급자재 품목별 구매현황에 대한 수감자료의 일부 계수가 착오가 있는 등 감사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있는 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로 과오납금 환급통지가 '97년 분이 현재에 통보가 되는 등 적기에 통보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또 과오납금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청구인 불편이 많은 바, 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청계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는 당초 설계금액이 1억 4,282만 4,00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1억 8,305만 6,000원으로 대폭 증가되는 등 '99년 준공공사 67건이 공사비의 증가 설계변경이 수반되었는 바, 향후는 당초설계에 적정을 기하여 이런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구 세입예산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은행예탁상품을 구분하여 예탁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각종 구의 기금도 같은 맥락에서 이자수입을 고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세입선 등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를 2월, 3월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관계 부서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99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112건에 달하고 있으나 계약업자는 대부분 관외 업자이므로 가능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종로지역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를

검토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공시지가 상·하향 조정 신청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여 개인 이익을 우선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의 신청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여야 되겠으며 열두번째로 세무공무원의 불친절이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세무 공무원은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89년에 제정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의 적용으로 추진한 사업지구가 오히려 주택의 슬럼화를 촉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여론이 사업현장에서 대두되고 있으니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 등을 개정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 바라며 두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소형평수는 즉시 철거하는 실정이나 대형평수는 철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나 대형평수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세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부과에 형평성이 없거나 일부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일부 악덕 건축주는 무허가 건축을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를 의도적으로 계속 체납시키는 술법을 동원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서 부과 2억 1,391만 6,000원에 징수 5,220만 6,000원으로 징수율이 약 26% 정도로 부진한 바, 징수를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섯 번째로 인왕산에 불법기도 또는 무속행위 등이 행하여지고 또 일부 지역에는 자릿세를 징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단속을 할 것이며 여섯 번째로 청진동 재개발지구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주가 반대이사를 표명하고 있는 바, 반대지주를 설득하여 추진할 방안이 무엇이며 설득이 안 되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 청진지역의 노후건물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장기 위법 미사용 승인 건축물

이 202건으로 이로 인하여 재산세 부과 문제나 재산권 형성상 문제점 등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정 대책을 건의할 것이며 여덟 번째로 종묘공원의 야간 이용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이므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검토바라며 아홉번째로 공원 또는 가로등에 예산으로 식재한 수목이 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보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열번째로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동의 건축 신고업무가 구에 이관될 경우 건축과의 건축직 보장이 필요한 바, 이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지구 11개소의 사업 내용 중에는 놀이터, 어린이집 등 일부 복지시설이 전혀 반영 안된 지구에 복지시설의 설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이며 열두번째로 충신 어린이집은 '94년에 준공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옥상 누수 및 벽체 습기가 차는 등 복합적인 부실 건물인바 현장 조사후 적절한 보완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공원이나 가로에 식재된 수목에 해충피해가 자주 목격되고 있으니 사전 방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열네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공사에 시공업자가 주민의 민원수령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공사 감독관의 현장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로 플래카드 게첨기간이 종료된 플래카드는 적시에 제거하여야 하나 구 관련 플래카드는 게첨기간 종료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바,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열여섯 번째로 종로 관내에 무허가 돌출간판이 다수 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통행과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니 적법하게 조치하고 열일곱번째로 적선동 목삼빌딩은 인근지반에 균열이 있는 등 위험상태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로 세검정 삼거리에서 삼청동간 지하터널 도로 등 미시행 도시계획 도로는 조속히 해제 조치를 하여 관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열아홉번째로 기존 건축물에서 주차장 용도를 상가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

에 대하여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스무 번째로 수목 벗짚쌓기 등에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된 공공근로자들의 작업태도가 불성실한 바, 작업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스물한번째로 낙산복원사업은 시비 약 2,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인바 보상업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보상 대상자에게는 최대한 예우를 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스물두번째로 세종로 국민카드 앞 공지에 녹지대 조성을 작년에도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 설치되었으니 처리하기 바라며 스물세번째로 가로수 식재목이 생육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보조턱을 제거하고 또 뿌리확장으로 보도블록 요철이 생긴 것은 조속히 보완하고 스물네번째로 청운동지역 일부 가로수가 옆 건물 쪽으로 가지가 돌출되어 건물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를 제거하기 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로 각과 관련 시공사나 구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구의원에 공사사실을 통보하여 홍보는 물론 공사 시공편의가 도모되도록 하고 스물여섯번째로 은정목의 경우 전지를 하지 않을 경우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으니 개화 전에 전지를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굴착 공사를 동절기에 집중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도로파손이 가중되고 있고 또 복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정 바라며 두 번째로 종로나 청계천변 인도에 과도한 상품적치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통행인에게 위법이나 불법을 방치한다는 행정력 부재의 지적을 받고 있으니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세 번째는 가로 가판점이 이권화 되어 상당한 권리금에 내부전매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관계법규에 의한 적정한 점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는 바 획기적인 점용료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하수도, 맨홀 등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우기 시에는 이로 인한 내수침수 사례가 야기되는 바, 사전 준설 등에 철저를 기하

여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여섯 번째로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돌출 맨홀을 조속히 정리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관내 보안등을 관할동장이 업자를 선정 수리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으나 각 동에 회계처리지침이나 비치서류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어 동별로 임의 작성하는 사례로 비효율과 합리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통일적 기준을 시달하고 여덟번째로 연화칼살을 동절기 결빙에 대비하여 각 동별로 취약지역에 배정하고 있으나 종로5,6가동, 이화동 등 일부 고지지역에는 배정이 충분히 안되고 있으니 취약지역별 배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뒷골목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의 요철부분을 사전 정지함이 없이 덧씌우기공사를 함으로써 덧씌우기 단면이 기준이하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한 요철부분은 사전 정지 후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열번째로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조성함에 있어 353평의 토지에 57대의 차량만 주차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토지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비현실적 계획이 아닌지 소명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종로통에 노점상으로 인하여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열두번째로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변경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가 되므로 사전에 의회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열세번째로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에 있어 동일 인근지역임에도 점용료 부과가 형평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이웃간 민원이 유발되는 등 점용 면적의 산정과 점용료 부과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열네번째로 가회동사무소~감사원간 도로개설공사가 한해에 공사시행 중에 설계변경을 3회 했다는 것은 사전조사가 부족하였거나 설계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공기 지연이나 예산추가 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니 향후 사전설계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로 각종 점용료 체

납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압류조치 등 채권보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열여섯번째로 공사관련 관계공무원은 청렴성과 친절성 등 공무원 기본소양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업자와의 관계와 또 공사장 주변 주민의 민원사항 수렴에 유념하여 최근의 불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면밀히 연구할 것이며 맨홀 설치 시 양생기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성품을 매립하는 식의 공법을 연구 검토하고 열여덟번째로 주택가 골목주차로 야간에 화재나 위급 환자 발생시 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대형사고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야간 21시 이후에 소방도로 통행 지장차량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로 전용차선의 실선 설치와 점선설치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는 바, 사실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스무번째로 초등학교 등, 학교길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어린 학생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吳錦南委員께서 지적하신 민간 마을버스에 구 마크를 부착하는 사례가 있는바 만약 사고사건이 있을 경우 구 연관 책임을 거론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정의껏 개선 보완하여 전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에 이상으로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先輩同僚 委員 여러분! 그리고 두 분 局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委員 여러분께서는 12월 4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 채택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99年度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終了를 宣布합니다.

(16時48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吳 弼 根 崔 康 洵 吳 錦 南 玄 壽 漢  
丁 炳 煥 李 炯 述 金 福 同 金 以 煥  
宣 相 善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

○出席關係公務員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交通行政課長 鄭倫漢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土木擔當主事 李子和